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구술자명	고병선	면담자	문성예		
면담장소	학산지속발전협의회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오후4시	회차	1	시간	43분 19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1151				
구술 개요	유년시절 승기천에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던 기억. 하수와 쓰레기가 유입되며 오염되고 냄새가 남. 승기천 주변으로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움. 80년대 초부터 일대가 개발되고 승기천이 복개됨. 개발, 매립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이 줄어들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승기천을 다시 뜯어내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 개발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함께 공존하는 마을이 되었으면 함.				
주요 색인어	승기천, 붕어, 미꾸라지, 자연제방, 오염, 복개, 하수, 쓰레기, 다리, 밭농사, 가축, 80년대, 개발, 미추홀구, 고향, 그리움, 매립, 철거, 역사, 공존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유년시절의 승기천			00:00:00~ 00:03:30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인주대로 자체가 승기천을 복개한 것임. - 동네 아이들과 승기천에서 붕어, 미꾸라지를 잡아 닭에게 줌. - 자연제방으로 주위가 다 논밭이었음.					
2. 승기천의 오염과 복개					
- 인천고 1년 재학 당시(1983년경)에도 복개되지 않은 상태였음. - 하수, 쓰레기 등으로 개천이 냄새나고 오염됨. - 개천 길이가 길어 구간별로 공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 복개하지 않고 여가시설, 녹지를 조성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3. 승기천에 대한 추억			00:07:37~ 00:13:55		
- 폭이 10m 정도로 다리로 물 위를 건널 수 있었음. - 물에 직접 들어가 물고기 등을 잡아 닭 모이로 줌. - 승기천 일대에서는 밭농사를 하거나 가축을 길렀음. - 하교 후 친구들과 가는 놀이터 같은 곳이었으나 중학교 때부터는 승기천 대신 공터에서 야구를 함. - 8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되고 승기천이 복개되기 시작함.					
4. 미추홀구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			00:13:56~ 00:17:27		
- 가족, 지인들 중 대부분이 인천에 살거나 인천이 고향임. - 인천 미추홀구가 생활터전이 되어 떠날 생각을 거의 안 해봄.					

5. 승기천에 대한 그리움		
- 할아버지, 아버지의 삶의 터전이 매립 등으로 흔적이 없어짐. - 개발을 제한적으로 했다면 더 좋은 자원이 되었을 것 같은 안타까움이 듦. - 인터뷰를 하면서 승기천을 계속 살려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듦. - 배꼽산으로 불렸던 문학산을 경계로 연수구와 생활권이 구분되어 주로 미추홀구 안에서 생활함.	00:17:28~ 00:22:27	
6.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미추홀구의 모습		
- 요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 만한 곳이 없어 불쌍하다는 이야기 하곤 함. -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승기천 등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됨. - 개발이 우선인 시절이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승기천을 뜯어냈으면 좋겠음.	00:22:28~ 00:26:11	
7. 변화하는 미추홀구		
- 아버지가 사시던 주안1구역은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승기천 중에서도 주로 인천남부초 앞쪽으로만 왔다 갔다 함. - 승기천은 길 정중앙에 쪽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 휘어져 있었음. - 직접 가보니 건물이 생겼어도 지형을 통해 물길이었던 곳을 알 수 있었음.	00:26:12~ 00:31:27	
8. 미추홀구에 대한 바람		
- 80년대 초부터 개발이 이루어졌고 신기시장이 그나마 형체를 유지하고 있음. - 개발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개발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함께 공존하는 마을이 되었으면 함.	00:31:28~ 00:43:19	